심 사 총 평

『제43회 대한민국연극제 인천』에서 진행되는「제1회 인천 크로스떼아뜨르페스타」에 신청하여주신 모든 단체에 감사드립니다.

처음 신설된 연극제임에도 많은 관심 속에 총 53개 단체가 신청해 주셨고, 1차 심의에서 12개 단체를 선발, 2차 영상 심의를 거쳐 최종 5개 단체를 선정하였습니다.

대부분 의도한 축제의 지향성을 잘 이해하여 주셨으며, 특히 인천을 소재로 한 단체도 있어 매우 감사하였습니다.

신청하여주신 많은 단체에서 훌륭한 작품으로 지원해 주셨기에 심의를 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인천 크로스떼아뜨르페스타」가 지향하고 있는 '크로스', '진취성과 예술성의 조화', '연극 중심'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최종 선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양한 아이디어가 넘치는 계획 속에, 무대화된 공연을 보고 싶은 작품이 많았습니다. 다만 여러 여건으로 인하여 더 많은 단체와 함께할 수 없음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인천 크로스떼아뜨르페스타」에 더 많은 훌륭한 단체와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류 및 일부 영상으로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보석 같은 작품이 있었음에도 놓치진 않았을까?"라는 우려 속에 안목의 한계에 대하여 이해를 부탁드리고, 이번이 아니더라도 앞으로도 지속될「인천 크로스떼아뜨르페스타」에 빛나는 작품으로 참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진 (제43회 대한민국연극제 인천 집행위원장)
문삼화 (연출가 / 예술감독)
이재상 (연출가 / 극작가)